

<<내신 기출, 독서 미래엔-상편>>

◆차례◆

I 독서의 본질

- 1. 독서에 대하여_헤르만 헤세 ----- 1쪽 (24문제)
- 2.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 15쪽 (55문제)

II 독서의 계획과 태도

- 1.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_한정원 ----- 44쪽 (16문제)
- 2. 함께 읽기의 즐거움_《오래된 미래》를 읽고 ----- 53쪽 (7문제)

III 독서의 방법

- 1. 커피 이야기_김성운 ----- 60쪽 (35문제)
- 2. 앓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_윤구병 ----- 83쪽 (26문제)
- 3.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_안창호 ----- 98쪽 (30문제)
- 4.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탕자나무였다_나희덕 ----- 117쪽 (25문제)
- 5.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_남종영 ----- 132쪽 (15문제)

IV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 1.
 -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_김용석 ----- 143쪽 (23문제)
 -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_빈센트 반 고흐 ----- 159쪽 (16문제)
- 2.
 -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_미셸 푸코 ----- 169쪽 (7문제)
- 3.
 -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_이은희 ----- 176쪽 (3문제)

- ▶정답 -----183쪽
- ▶해설 -----185쪽

(버전: 2020.08.09.)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핵심어

- **목적에 맞는 독서:** 독자의 독서 목적에 따라 글(책)의 선택이 달라진다. 독서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학업을 위해, 여가를 위해,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독서의 일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치 있는 글(책):** 가치 있는 글이란 내용이 유용하고 형식이 분명한 글로, 독자가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글을 말한다. 주로 권장하는 것이 고전인데, 고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미 검증된 가치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 독서의 첫걸음 ‘글의 선택’

- 책을 읽는 이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글(책)의 선택: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므로, 어떤 책을 읽는 게 더 좋을지 정해야 함.

■ 목적에 맞는 글 선택하기

- 나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려면 내가 책을 읽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글을 찾아야 함.
- 독서의 목적에 따른 책 선택 방법

독서의 목적	책 선택 방법
학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분야의 지식을 잘 정리한 분야의 책 찾아서 정독(精讀)함.
교양을 쌓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교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서 읽을 만한 책을 찾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책을 찾음.
여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나의 흥미와 관심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생각하여 책을 찾음.

■ 독서 수준에 맞는 글 선택하기

- 목적에 맞는 책을 찾았으면, 그 책이 나의 독서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함.
-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나 내용의 글을 선택해야 함.
- 책의 표지와 목차, 서문, 본문 등을 참고하여 선택한 책이 나의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음.

표지	책의 성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음.
목차나 서문	책에서 다룬 내용의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본문	한 면을 펴서 나의 지식이나 어휘력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핌.

→ 글을 읽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책을 선정하여, 각자에게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택해야 함.

■ 가치 있는 글 선택하기

- 독서 목적에 맞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도,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가치관을 담고 있는 책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
-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내린 평가를 참고하면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됨.
- 여러 매체에 다양한 형식으로 수록된 서평을 참고하거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검증되어 ‘고전’으로 인정된 책을 찾아볼 수 있음.

독서에 대하여_헤르만 헤세

■ 핵심 정리

갈래	수필
성격	비유적, 주관적
제재	올바른 독서 방법
주제	주의를 집중하여 독서하는 태도의 중요성
특징	① 단호한 어조로 바람직하지 못한 당대 독서관을 비판하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책의 가치와 올바른 독서에 관해 서술함. ② 독서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다양한 비유를 예로 들어 설명함.

■ 작품의 구성

처음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례
중간	잘못된 독서 태도 비판과 올바른 독서 태도
끝	바람직한 독서의 기대 효과

■ 독서의 잘못된 사례

	뮐러 씨	마이어 씨
독서의 목적	교양을 갖추고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재미를 목적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책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김. →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	책은 뜯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세계이며 심심풀이에 불과하다고 경멸함. → 독서에 대한 과소평가



글쓴이의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독서를 해서는 안 됨. 책에 대해 뚜렷한 자기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됨.

■ 비유를 통한 잘못된 독서 태도 비판

미련한 환자	어리석은 독자
약국	도서관, 서점 등 책이 있는 곳
좋은 약	좋은 책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기	많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읽기 (남독)

■ 글쓰기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

- 독자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음.
-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볼 수 있게 해 주고,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음.

■ 글쓰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서의 태도

- 정신을 분산하지 말고, 온 힘을 기울여 책에 담긴 인간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함.
-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를 갖고, 더 풍성한 힘을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함.
-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함.
-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독서 태도를 비유한 표현

올바른 독서 태도	잘못된 독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에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 •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는 마음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는 겁에 질린 학생 •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

■ 바람직한 독서의 기대 효과

- 책을 집중하여 읽음으로써, 책 속에 담긴 감정에 공감하며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함.
- 사람들이 책을 적게 읽어서 작가의 책이 잘 팔리지 않고 작가들이 작품을 적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들이 독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많이 읽기보다는 공을 들여 양질의 독서를 하기를 기대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여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뮐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은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중략>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뮐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렵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략>

인생은 짧고,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

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 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열 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열 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림,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 헤르만 헤세, 「독서에 대하여」

가정고등학교 (인천)

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의 목적
 - 올바른 독서의 태도를 중심으로
- ② 독서의 의미
 -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를 중심으로
- ③ 독서의 의의
 - 글쓰기와 독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④ 독서의 방법
 - 독서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중심으로
- ⑤ 독서의 가치
 - 수준 높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중심으로

가정고등학교 (인천)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독서에 관한 ‘마이어’ 씨의 생각과 일치한다.
- ② ㉡ : 독서를 과대평가하는 독자유형에 해당한다.
- ③ ㉢ : 남독(濫讀)을 일삼는 독서행위를 비유한다.
- ④ ㉣ : ㉣의 유무에 따라 질적 차이가 결정된다.
- ⑤ ㉤ : 작가보다 독자가 우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려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자, 그런데 이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이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재권 한 장을 사고파는 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 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 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차피 뜯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며 ㉥내심 경멸하거나 한다.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렵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략>

인생은 짧고,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수원여자고등학교 (서울)

3.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잘못된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올바른 독서의 방법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잘못된 독서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잘못된 독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 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서울)

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 달리 ㉤는 수동적인 태도로 남독하고 있다.
- ② ㉢와 달리 ㉤는 독서를 심심풀이로 여기고 있다.
- ③ ㉢와 달리 ㉤는 교양을 갖추기 위해 독서를 한다.
- ④ ㉢와 달리 ㉤는 독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주체성 없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5. 윗글을 읽고 글쓰이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쓰이는 뭉려 씨를 마이어 씨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글쓰이는 당대 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옹호하고 있다.
- ③ 글쓰이는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④ 글쓰이는 차를 즐기듯이 혹은 신문을 보듯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글쓰이는 마이어 씨가 뭉려 씨에 비해 더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6. ㉠~㉣의 단어의 뜻풀이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부득불' -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게
- ② ㉡ '소일거리' -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기 위하여 심심풀이로 하는 일
- ③ ㉢ '공산' -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
- ④ ㉣ '내심' - 겉으로 드러내 놓고
- ⑤ ㉤ '고양' - 품위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함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7. ㉠을 통해 글쓰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양을 위한 독서의 문제점
- ② 독서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점
- ③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의 문제점
- ④ 이득을 따지며 독서하는 태도의 문제점
- ⑤ 목적 없이 아무 책이나 읽는 독서의 문제점

핵심어

- **상호 텍스트성:** 하나의 책이나 글이 다른 책이나 글과 맺는 관련성을 말한다.
- **화제:** 이야기의 중심 제재, '글이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에서 '무엇'에 해당한다.
- **형식:** 언어적인 면에서는 어휘, 문장, 글씨 크기와 배치, 글의 양 등을 말하고 내용 면에서는 내용의 친숙도, 예측 가능성 등 내용의 난이도를 말한다.
- **관점:** 글쓴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말한다.
- **주제 통합적 읽기:** 같은 화제를 다룬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의 글을 읽고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책과 글의 상호 텍스트성

- 상호 텍스트성: 여러 책과 글이 서로 관련성을 맺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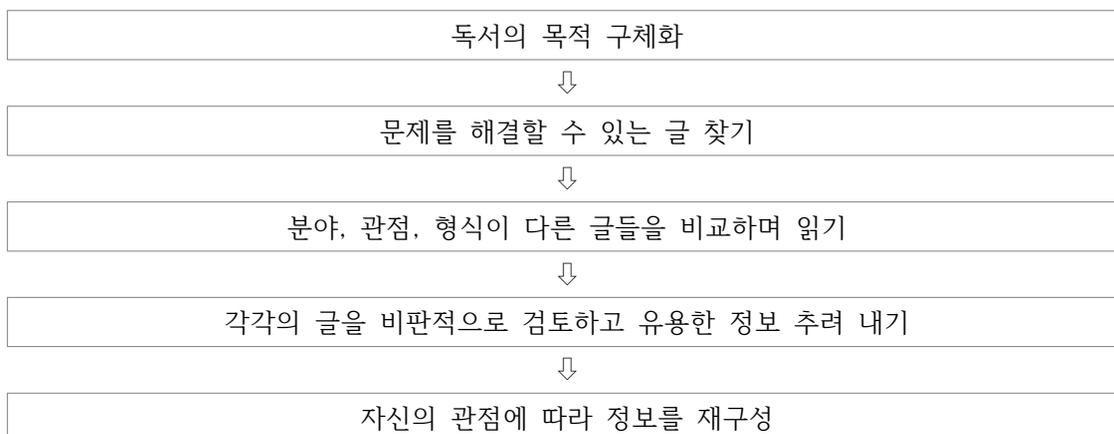
■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독자의 관점과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면서 읽는 활동
 → 다양한 글을 비교하면서 비판적·통합적으로 읽으면 화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주제 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 ①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볼 수 있음.
- ②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음.
- ③ 균형 잡힌 독서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음.
- ④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

■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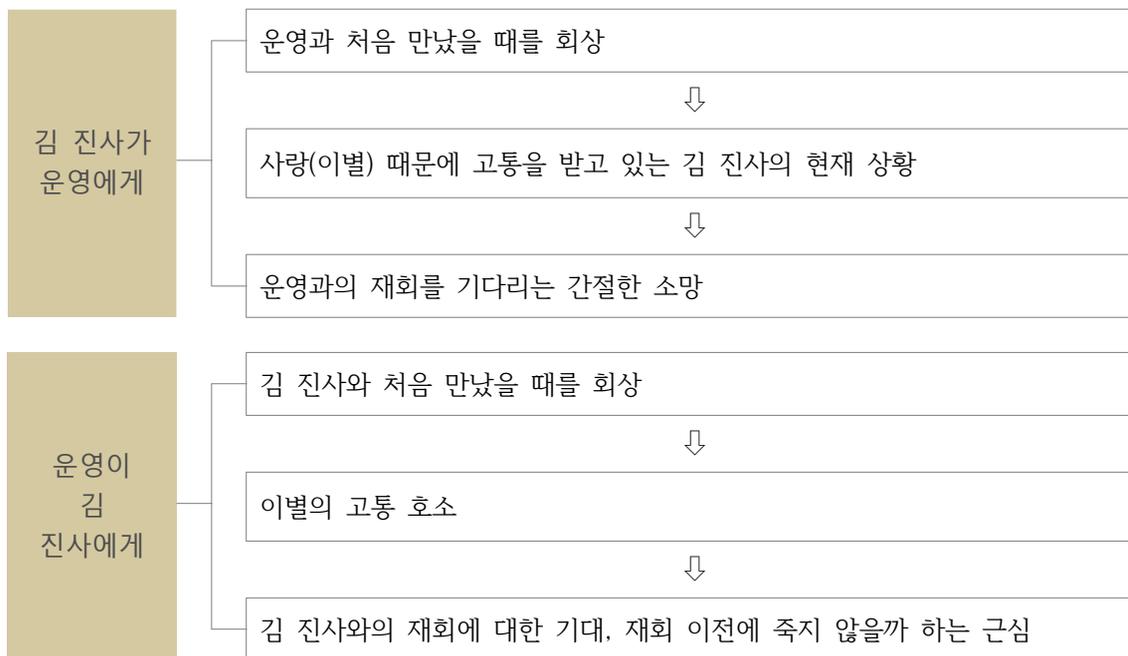


사랑의 편지_작자 미상

■ 핵심 정리

갈래	서간문(고전 소설 《운명전》에 포함된 편지글)
성격	비극적, 회고적, 감상적
제재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
주제	남녀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
특징	①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 ②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감정인 사랑을 다루고 있음. ③ 고전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함. ④ 비유를 사용하여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호소력 있게 제시함.

■ 글의 짜임



사랑의 역사_김용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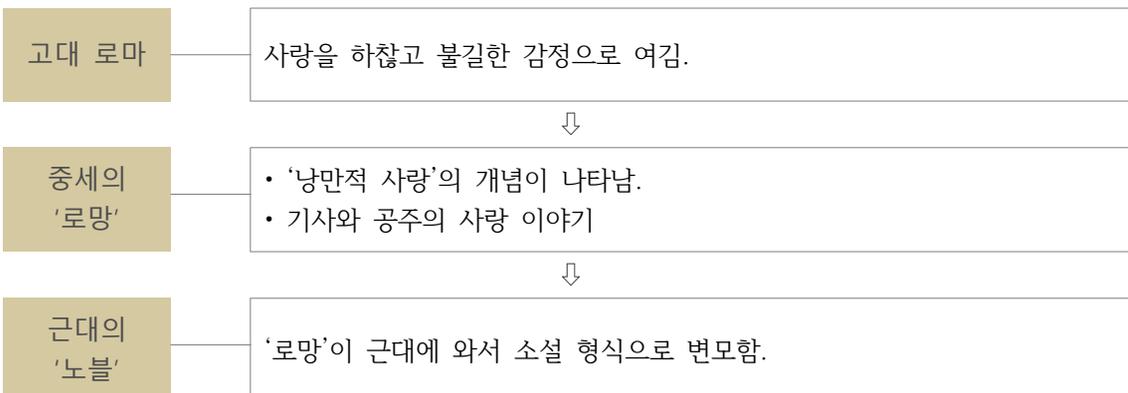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비평문
성격	설명적
제재	낭만적 사랑의 관념
주제	사랑에 대한 관념의 역사적 변화
특징	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랑'의 변화를 서술함. ②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서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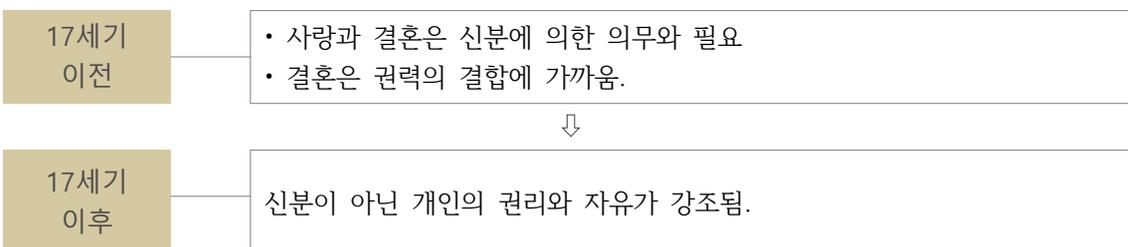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처음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의 탄생 과정
중간	17세기 이후 사랑의 관념 변화와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
끝	현대 사회에서 사랑의 의미

■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의 탄생 과정



■ 17세기 이후 사랑과 결혼의 관념 변화



■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사랑

-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의 수단으로 여겨짐.
-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고 믿음.

■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

- 남성은 여성이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하고, 여성은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은 남성을 꿈꾸게 됨.

■ 현대 사회에서 사랑의 의미

- 사랑의 열정은 소모적인 감정으로 여겨짐.
-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자아를 확산해 가고자 함.
→ 사랑을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함.

■ 사랑의 가치와 미래의 전망

- 사랑은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는 유일한 존재임.
→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임.

사랑에 대한 오해_정재승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설명적, 체계적
제재	뇌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
주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
특징	① 과학의 관점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함. ②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예로 들어 설득력을 높임. ③ 전문가의 견해를 예로 들어 글의 신뢰성을 높임.

■ 작품의 구성

처음	사랑의 사전적 정의에 대한 신경 과학자들의 의문
중간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신경 과학자들의 주장과 그 근거
끝	사랑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현 상황과 시사점

■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이 존재하지 않음.	반드시 뚜렷한 목적이 있는 행동을 동반함.	뇌에서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됨.
-----------------------	-------------------------	----------------------------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까움.

■ 사랑을 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 뇌의 보상 중추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이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운영이 김 진사에게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처음 군자의 모습을 뵈고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배 오신 게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용모가 다른 아홉 사람보다 훨씬 못하건만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마침내 가슴속 한을 맺게 할 빌미가 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는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서 뵈었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 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 어려 있었답니다. ㉡배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차마 들을 수 없었어요.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역시 서글퍼 차마 볼 수 없었지요. 병풍에 기대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서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봅니다. 낭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낭군을 만나 보기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어요.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한들 가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고 해도 품은 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작자 미상, 박희병·정길수 옮김, 「사랑과 죽음」

(나) 고대 로마에서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다. 중세가 되면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난다.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 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근대에 와서 '노블', 즉 소설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비로소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한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승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바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

제가 되었다.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 줄 남성을 꿈꾼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찍으려 한다.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 가는 방식의 사랑이 그것이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된다.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상대는 곧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인 셈이다.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 김홍희, 「사랑의 역사」

(다)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 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믿는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자기 공명 영상기(M.R.I)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뇌를 찍은 최초의 연구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소모되는지 관찰했다.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상 중추라는 영역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였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는 것도 관찰됐다.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 상태도 생물학적인 뇌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한 것이다.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늘어난다.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서 늘어나면 사람은 혈기 왕성해진 신체, 신경과민, 불면, 식욕 상실, 떨림, 두근거리는 가슴, 가빠지는 호흡, 고민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 모든 증세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흔히 관찰되는 증세가 아니던가.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는 모든 행동은 생물학적인 뇌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낭만적 사랑 또한 1.3 킬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이 단백질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물론 사랑이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회로의 작동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랑하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랑의 원인인지 결과물인지, 혹은 그저 부산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랑을 하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많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평소 역할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정재승, 「사랑에 대한 오해」 -

가정고등학교 (인천)

1. (가)~(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밝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문제가 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통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다)와 달리 시대에 따른 개념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⑤ (다)는 (가)와 달리 각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가정고등학교 (인천)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김 진사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김 진사와의 이별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는 운명의 심정을 보여준다.
- ③ ㉢은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진 시기에 형성된 낭만적 사랑을 의미한다.
- ④ ㉣은 현대 사회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됨을 뜻한다.
- ⑤ ㉣은 사랑이 뇌의 작용에 의한 감정에 가깝다는 근거이다.

가정고등학교 (인천)

3. (나)와 (다)의 입장에서 (가)의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대 로마인들은 운명을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겠군.
- ② (나)의 현대 사회에서 운명의 사랑은 의무에 따른 것이며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로 생각됐겠군.
- ③ (나)의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운명의 사랑은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우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겼겠군.
- ④ (다)의 신경과학자들은 운명의 사랑을 생물학적인 뇌의 작용으로 이해했겠군.
- ⑤ (다)의 신경과학자들은 운명의 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화학 물질이 활발히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겠군.

가정고등학교 (인천)

4. (다)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의 정의에 관한 신경 과학자들의 견해
- ② 뇌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사랑'과 뇌의 관계
- ③ 여러 학자들의 관점 비교를 통하여 살펴 본 '사랑'의 개념
- ④ 전통적 의미의 '사랑'과 현대적 의미의 '사랑'의 개념 비교
- ⑤ '사랑'의 사전적 정의에 대한 사회학자와 과학자의 입장 차이

무거고등학교 (울산)

5. (나)에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쓸 것 •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과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모두 포함할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 로마에서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다. 중세가 되면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난다.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 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근대에 와서 '노블', 즉 소설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비로소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성 종교로 부상했다.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한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승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바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었다.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 줄 남성을 꿈꾼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 이몽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

(나)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여느 감정과 (㉡)된다.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에 간직된다고 해서 감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은 다르다. 사랑이라는 상태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며, 그와 함께하고 그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일련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 사진을 찍어 보면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된다.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 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믿는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자기 공명 영상기(M.R.I)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뇌를 찍은 최초의 연구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되는지 관찰했다.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상 중추라는 영역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였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되는 것도 관찰됐다.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 상태도 생물학적인 뇌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한 것이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사랑'에 대한 남녀 시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사랑'이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⑤ (가)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과학적 실험을 바탕으로 '사랑'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 ② 사랑이 종교보다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종교의 영향력이 중세 이후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 ④ 17세기 이후에는 종교적 사랑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 ⑤ 근대 부르주아 계층에서는 사랑을 종교보다 더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핵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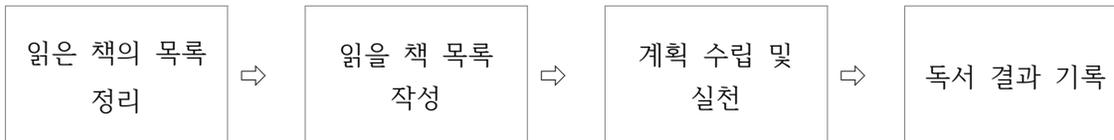
- **평생 독자:** 학창 시절이나 필요할 때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책을 읽는 독자를 말한다.
- **독서 이력의 점검과 성찰:** 자신이 이제까지 읽어 온 책의 목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분야나 독서 습관 등을 돌아보는 것을 말한다.
- **장기적인 독서 계획과 실천:**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 적성과 진로, 학업과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독서 활동을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독서 계획의 필요성

- 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성됨.
→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활동
- ② 평생 독자: 독서 능력을 갖추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독자'가 되어야 함.

■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성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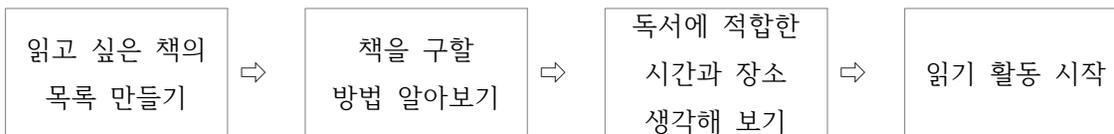
- ① 독서 이력 점검의 필요성: 자신의 독서 습관을 반성하고, 평생 독자가 되는 첫걸음이 됨.



- ② 독서 이력 점검 및 성찰: 자신의 독서 태도는 적절했는지, 독서 분야가 편중되거나 읽은 책의 내용이 편중되지 않았는지 점검
→ 장기적인 독서 계획 수립의 밑거름

■ 장기적인 독서 계획 세우기

- 장기적인 독서 계획의 필요성: 독서를 하려는 마음을 가다듬고 독서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평생 독자가 될 수 있음.



■ 독서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 기르기

- ① 독서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의 필요성: 독서 결과를 기록하며 독서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의 독서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 ② 독서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

독서 활동지	• 읽은 책의 정보와 소감을 바로바로 기록하여 효과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음.
독서 포트폴리오	• 다양한 독후 활동들을 모아 일정한 체계에 맞게 정리한 일종의 작품집 • 글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독서를 즐겨 하는 습관을 지니는 데에 도움을 줌.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_한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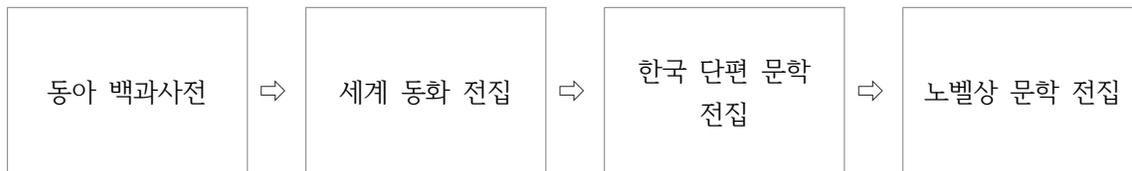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인터뷰 글(면담)
성격	주관적, 교훈적
제재	독서 이력과 독서 계획
주제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독서 계획과 실천의 중요성
특징	①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접 들어 봄으로써 더욱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②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작가의 주관적인 이해와 감상을 덧붙임으로써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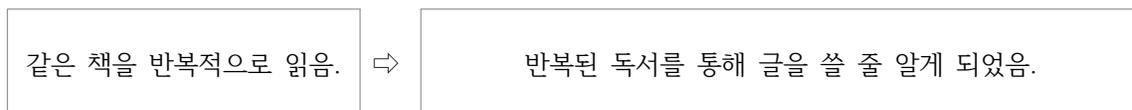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질문 1	과학자 최재천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 - 최재천의 독서 이력과 독서 습관, 책과 독서의 의미
질문 2	문학청년, 과학을 만나다 - 최재천의 진로에 영향을 끼친 독서 경험, 현대 사회의 변화와 독서의 중요성
질문 3	능력을 키워 주는 독서 - 최재천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독서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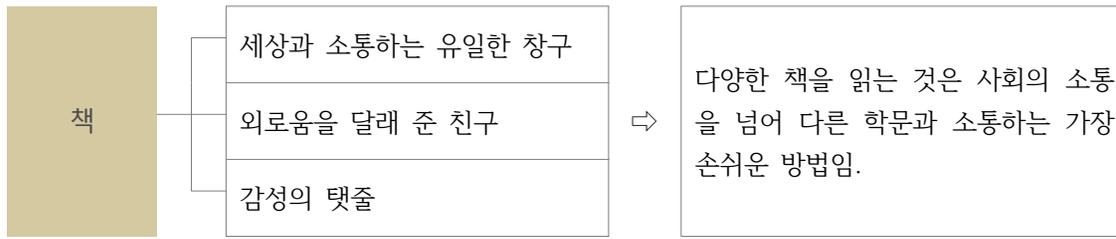
■ 최재천의 독서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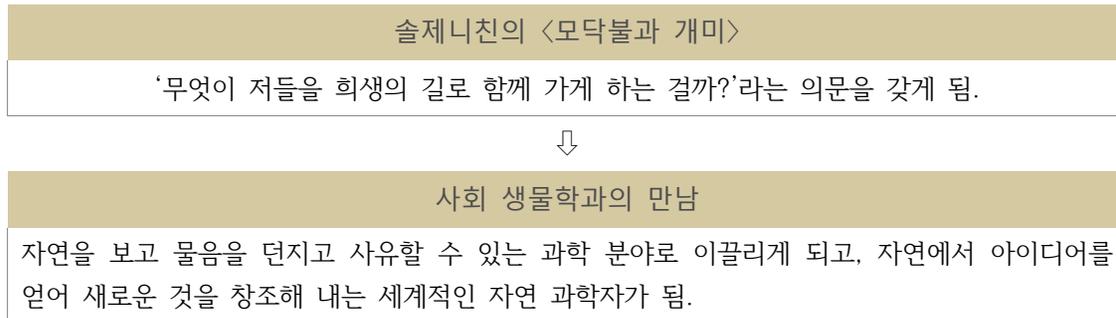
■ 최재천의 독서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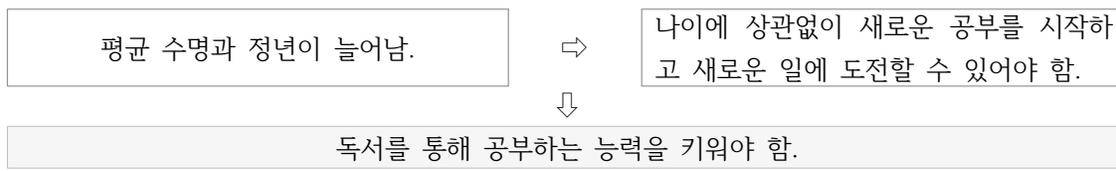
■ 최재천에게 책과 독서의 의미



■ 최재천의 진로에 영향을 끼친 독서 경험



■ 현대 사회의 변화와 독서의 중요성



■ 능력을 키워 주는 독서

- 독서는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임.
- 최재천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독서의 방법
 - ①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함.
 - ② 어려운 책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함.
 - ③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읽어야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사 주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 주셨다.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어찌 보면 최재천의 독서 인생은 전집 독서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전집'을 거치면서 그는 자연 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씩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 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 외로움을 함께 달래 준 친구였으며, 감성의 텃밭이었다.

최재천이 열일곱 살이 되던 1970년,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 책을 놓칠 리 없는 그는 책방에서 솔제니친의 책을 샀다. 그 책에는 솔제니친이 쓴 여러 편의 수필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그중 최재천은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그는 궁금했다.

‘무엇이 저들을 희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걸까?’

의문에 꽂힌 그는 당시에는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 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세계적인 자연 과학자가 되었다.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 준 사람은 바로 그때 수필에서 만났던 솔제니친이다.

창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 갈고 닭은 싸움의 기술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로, 세계로 뻗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가 지금껏 어느 때보다 힘 있게 답했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정년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의 직업만을 갖는다는 건 옛말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공부하는 능력을 **①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부하는 능력, 다시 말해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독서는 취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②독서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략이고 독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휴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먹고사는 일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름의 핑곗거리를 만들며,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재천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해요.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읽기 힘들어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분야에 뭔가가 쌓이게 됩니다. 자연 과학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연 과학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와 같아요. 진화론도 읽고, 나노 과학책도 읽고, 어려운 책, 쉬운 책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양하게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읽어 보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책도 나름의 읽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려운 책들도 별 도움 없이 쪽 읽어 내는 사람이 됩니다.”

책은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혼자이기에 책을 찾기도 한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책과의 대화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의 세상은 하나의 나무 기둥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 나가듯 풍성했고 꽃이 피듯 다채로웠다.

광양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재천은 현대인은 자연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최재천은 반복적 독서가 글쓰기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한다.
- ③ 최재천은 <모닥불과 개미>를 읽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
- ④ 최재천이 남다른 감성을 갖게 된 것은 전집 독서를 통해서였다.
- ⑤ 최재천은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쉬운 수학능력 향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광양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독서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②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 ③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④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독서함으로써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기르는 독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 ⑤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광양고등학교 (서울)

3.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우리집에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
- ② 그 어머니는 네 남매를 모두 음악가로 키웠다.
- ③ 그는 방학 동안 몸만 키웠는지 이제는 마치 운동선수 같다.
- ④ 그녀의 태도는 사람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게 하는 역작용을 했다.
- ⑤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인내력을 키워야 한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4.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를 통해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의 경험을 직접 들어보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
- ②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겠어.
- ③ 독서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공감해 갔어.
- ④ 독서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읽기 방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 ⑤ 과거에 읽은 수필에 대한 의문을 이후에 해결하는 모습에서 독서 활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인화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을 통해서 제시된 최재천의 독서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로 읽는다. ㄴ. 전집의 독서를 통해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얻게 된다. ㄷ. 독서는 삶에 여유가 있을 때 휴식의 일환으로 하게 된다. ㄹ.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서 계속 읽다보면 지식이 쌓인다. ㅁ.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 읽는 방법을 터득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아 백과사전>이라고 답한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책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집 안에 있는 읽을거리라곤 고작 <동아 백과사전>이 전부. 그걸 마루에 펴 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추어 보는 게 일이었다. 다양한 사진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재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는 지금도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다양한 책 읽기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는 사전으로 책을 접했던 그때부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을 사 주셨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재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선물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1권 >집 없는 천사<와 2권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워낙 엄해서서 만화방은 갈 생각도 못 하고 집에서 그 책들만 죽자고 읽고 또 읽었지요.”

그 후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사 주셨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전집이다. 그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시작으로 주옥같은 한국의 단편 소설들을 삶아 먹듯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 소설들은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먹기. 그야말로 국어 교과서는 최재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수업 시간에 작가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바로 질문했다.

“선생님,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 보셨습니까? 다른 작품들을 다 보셨다면 이 작가가 그런 성향의 작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이 좀 독특한 작품인 겁니다.”

한 작가의 소설들을 모두 읽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해 낸 그였다. ⊙그는 국어 선생님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학생이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사 주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 주셨다.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어찌 보면 최재천의 독서 인생은 전집 독서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전집’을 거치면서 그는 자연 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획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 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

레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 외로움을 함께 달래 준 친구였으며, ⊙감성의 텃밭이었다.

최재천이 열일곱 살이 되던 1970년,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 책을 놓칠 리 없는 그는 책방에서 솔제니친의 책을 샀다. 그 책에는 솔제니친이 쓴 여러 편의 수필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그중 최재천은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그는 궁금했다.

‘무엇이 저들을 희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걸까?’

의문에 꽂힌 그는 당시에는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 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세계적인 자연 과학자가 되었다.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 준 사람은 바로 그때 수필에서 만났던 솔제니친이다.

창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 같고 닮은 싸움의 기술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로, 세계로 뻗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가 지금껏 어느 때보다 힘 있게 답했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정년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의 직업만을 갖는다는 건 옛말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한정원, 「지식인의 서재」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

6.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장 과정에 따라 독서 이력이 제시되고 있어.
- ② 독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
- ③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독서였다니 조금은 안타깝네.
- ④ 여러 분야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 ⑤ 반복적인 독서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움을 주는구나.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

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에 대한 이해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핵심어

- **중심 내용:** 필자가 글에서 말하려는 가장 중심된 내용, 또는 글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
- **글의 구조:** 글의 내용 조직에 사용하는 기본 골격으로, 여러 단위가 모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글의 주제:** '중심 내용'과 비슷하게 겹쳐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압축하기보다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해석'하거나 보편적인 현상에 맞추어 '일반화'했을 때 '주제'라는 말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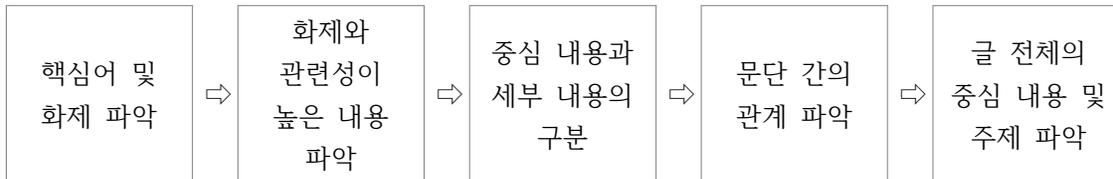
■ 사실적 읽기의 개념

사실적 읽기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을 말함.
	가장 기본적인 읽기 단계에 해당함.
	글의 화제 찾기, 핵심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 구분하기, 글의 논리 전개 방식 파악하기 등이 사실적 읽기에 포함됨.

■ 사실적 읽기의 방법

①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 중심 내용은 글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으로, 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글을 읽을 때는 먼저 화제를 찾고, 화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가려내고, 글을 구성하는 각 문단의 중요도와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함.



② 글의 구조 파악하기

- 글의 구조: 글을 구성하는 여러 단위가 모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이룬 것.

설명적인 글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 제기와 해결 등
서사적인 글	사건의 흐름을 따르는 구조

→ 글의 구조적 특성을 알면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됨.

③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 글의 전개 방식: 글에 존재하는 일관된 논리의 흐름
- 대체로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서 유래하지만,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함.

분류	어떤 대상들이나 생각들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종류별로 묶는 방식
분석	개념이나 문장을 보다 단순한 개념이나 문장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방식
정의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여 설명하는 전개 방식
과정	순서나 작용, 절차나 단계, 일련의 행동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서술해 나가는 방식
유추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

■ 사실적 읽기의 예 - 이규보, <이옥설>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성격	교훈적, 예시적, 경험적
제재	퇴락한 행랑채
주제	잘못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 새롭게 대처해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특징	① 일상적인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인간사 일반에까지 유추하여 삶의 이치를 밝힘. ②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함.

커피 이야기_김성윤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사실적, 체계적
제재	커피의 가공 방법
주제	커피 열매는 건식법 또는 습식법으로 가공되고, 로스팅을 거쳐 커피 음료가 됨.
특징	① 분류와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여 커피의 가공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함. ② 커피 열매가 가공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함.

■ 작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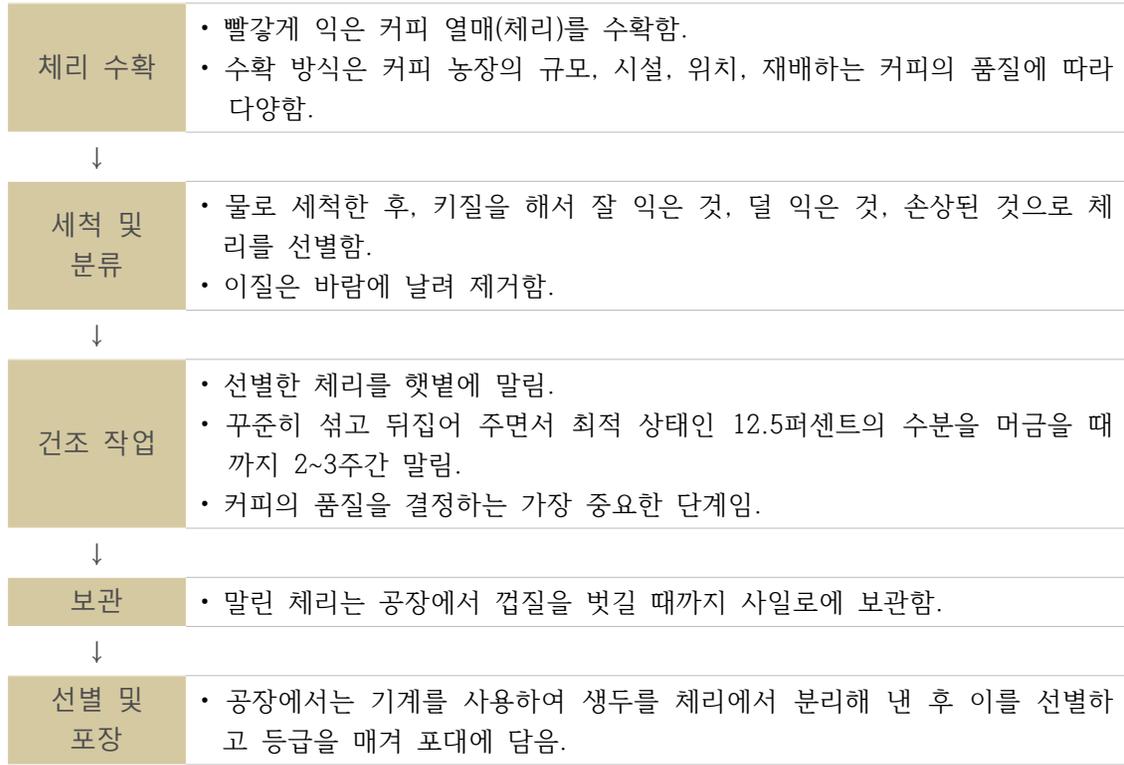
처음	커피 음료와 구분되는 생물학적 커피
중간	건식법, 습식법, 큐어링, 로스팅의 과정과 방법
끝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커피

■ 건식법과 습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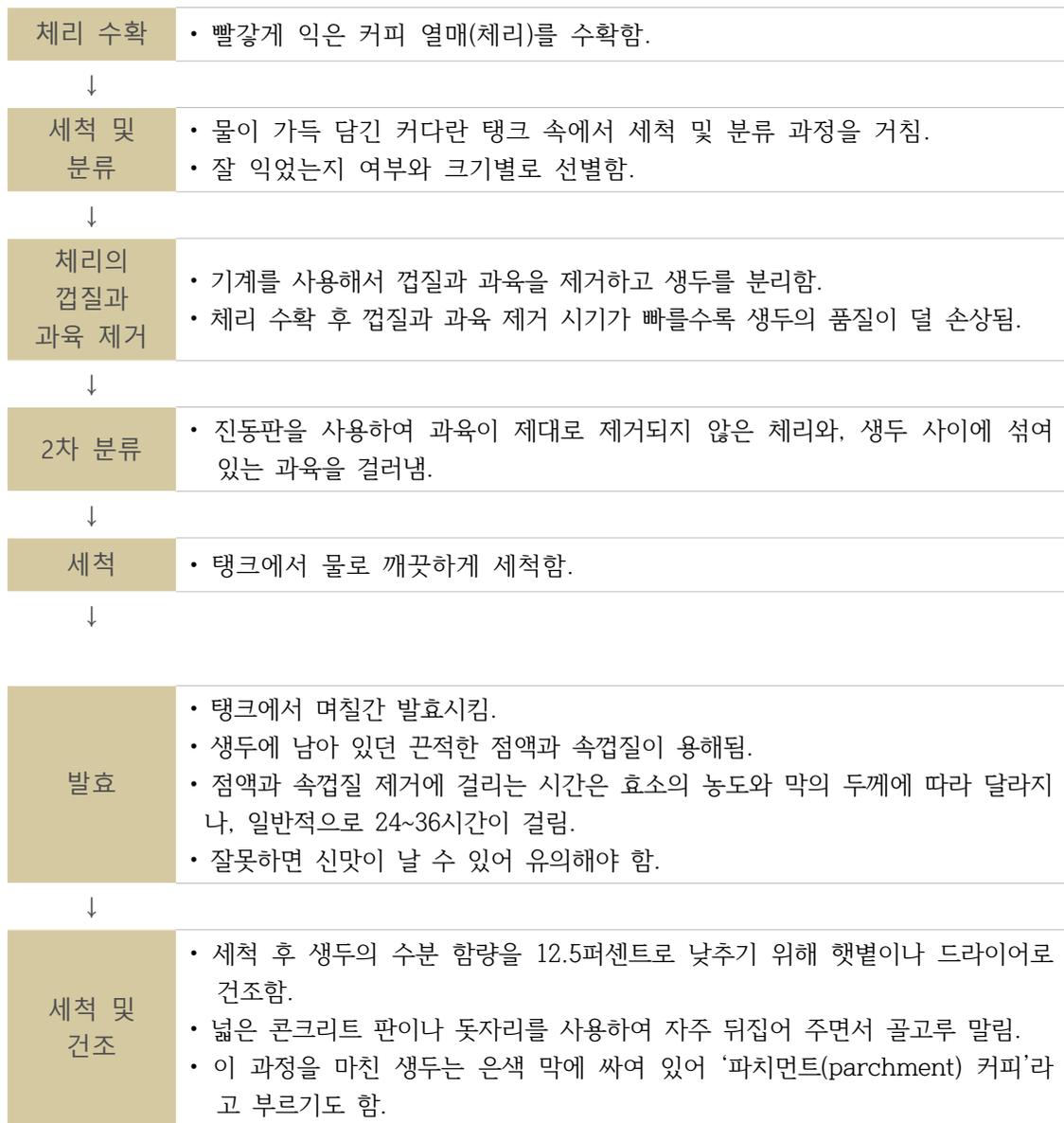
건식법	습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식이라고도 함. •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가공 방법이며,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함. •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감. • 값싼 로부스타 커피 가공에 이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건식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듦. •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이 잘 보존되며 훼손이 적음. •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공에 이용함.

Ⅲ-1.커피 이야기

■ 건식법의 과정과 방법



■ 습식법의 과정과 방법



■ 큐어링과 로스팅

큐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은색 막이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됨.
로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두를 고온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 있는 과당 등의 성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을 만드는 과정•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커피 원두의 맛과 향과 색이 달라지며, 주로 수출국 보다는 소비국에서 이루어짐.• 로스팅을 마친 원두를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마실 수 있는 커피 음료가 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커피 열매)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 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질용 통에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돛자리를 펼쳐 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퍼센트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3주간 말린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중략>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원두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두 훼손도 적다. 따라서 습식법은 대부분의 고급 아라비카 커피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과육을 벗겨 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 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친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 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

지만, 일반적으로 24~36시간이 걸린다.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 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 번 세척된다. 이때 생두는 약37퍼센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상적 수분 함유량인 12.5퍼센트로 낮추기 위해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건조한다.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 판이나 돛자리를 사용한다. 생두를 2~10센티미터 두께로 펼쳐 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싸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parchment)'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한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curing)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은색 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속아 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 김성윤, 「커피 이야기」

인화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갓 수확한 생두의 색깔과 향은 어떠한가?
- ② 건식법과 습식법의 공통적인 가공 과정은 무엇인가?
- ③ 습식법에서 과육을 벗겨 낸 생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 ④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는 가공방식은 무엇인가?
- ⑤ 파치먼트 커피의 은색 막이 모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인화고등학교 (경기)

2. 윗글에 사용된 전개방식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은?

- ① 시계는 숫자판과 시침, 분침, 초침으로 구성된다.
- ②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맹꽁이 등을 양서류라 한다.
- ③ 설명문은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이 중요하다.
- ④ 견과류 멸치볶음은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멸치를 넣고 볶은 다음, 설탕과 견과류를 넣고 다시 볶는다.
- ⑤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숨이 차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강계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질을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돛자리를 펼쳐 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퍼센트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3주간 말린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나)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거나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퍼센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 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퍼센트, 에티오피아·아이티·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다)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원두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두 훼손도 적다. 따라서 습식법은 대부분의 고급 아라비카 커피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과육을 벗겨 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 번 탱크

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친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 있던 끈적끈적한 점액 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36시간이 걸린다.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 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

(라)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에 꽃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roasting)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로스팅이란 생두를 12~20분간 섭씨 180~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 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 식품의 대명사 ‘뽕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이다.

(마)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아홉 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한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 김성윤, 「커피 이야기」

가정고등학교 (인천)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건식법에서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②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커피 원두는 다양한 맛과 향을 얻으며, 색도 다양하게 변한다.
- ③ 습식법에서 발효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 ④ 커피를 수확하는 방법은 농장의 규모와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 ⑤ 습식법에서 과육을 제거하는 기계는 생두에 손상을 주지 않게 조절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가정고등학교 (인천)

4. 뒷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생두의 수분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ㄴ. 발효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ㄷ. 로스팅이 수출국보다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ㄹ. 고급 아라비카 원두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커피 가공 방식은?

ㅁ. 껍질과 과육의 제거 시기가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되는 이유는?

- ① ㄱ, ㄹ ② ㄴ, ㄷ
-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가정고등학교 (인천)

5. (가)와 (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개념을 보다 단순한 개념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 ④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들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두 개의 대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가정고등학교 (인천)

6.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 ② 피곤해서 그런지 입맛이 떨어졌다.
- ③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 ④ 이미 그 일에 정이 떨어진 지 꽤 되었다.
- ⑤ 굶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커피 열매)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엷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 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질을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돛자리를 펼쳐 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퍼센트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3주간 말린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거나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퍼센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 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퍼센트, 에티오피아·아이티·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원두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두 훼손도 적다. 따라서 습식법은 대부분의 고급 아라비카 커피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

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과육을 벗겨 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 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친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 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36시간이 걸린다.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 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 번 세척된다. 이때 생두는 약37퍼센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상적 수분 함유량인 12.5퍼센트로 낮추기 위해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건조한다.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 판이나 돛자리를 사용한다. 생두를 2~10센티미터 두께로 펼쳐 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싸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parchment)'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한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curing)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은색 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솟아 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에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roasting)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로스팅이란 생두를 12~20분간 섭씨 180~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 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 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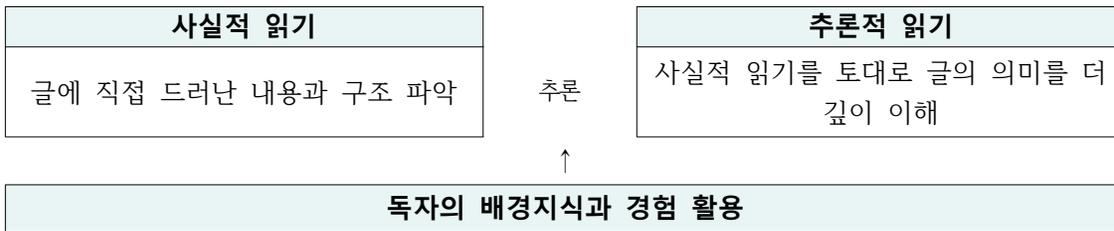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아홉 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된다.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브라질은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

핵심어

- **정보 예측:**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등을 활용하여 다음에 이어질 내용, 글 전체의 주제 등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는 것을 말한다.
- **추론:**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글쓴이는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글을 쓰지만, 대부분 이를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 추론해야 한다. 글의 의도와 목적 크게 설명, 논증, 설득, 느낌과 정서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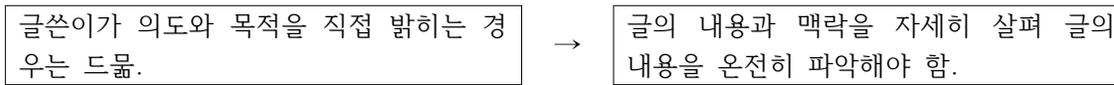
■ 추론적 읽기의 개념

- 추론적 읽기: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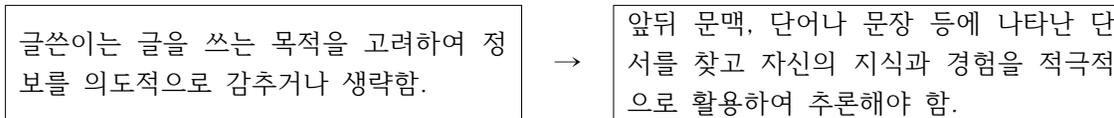


■ 추론적 읽기의 방법

- ①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추론하기



- ②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 추론적 읽기의 예 - 마틴 루서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갈래	연설문
성격	논리적, 설득적
주제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
특징	① 핵심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장하려는 바를 강조함. ② 비유와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들에게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

앓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_윤구병

■ 핵심 정리

갈래	수필
성격	체험적, 사색적, 교훈적
제재	조상들의 삶의 흔적인 문화유산
주제	우리 문화유산 전승의 가치와 중요성
특징	① 글쓴이의 인생관을 추론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소개함. ② 농촌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의 변화 등을 잔잔한 어조로 서술함. ③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그와 상반되는 대상과 비교하여 서술함.

■ 작품의 구성

처음	조상들의 삶의 흔적으로서의 문화유산
중간	살아 있는 문화유산 ① - 도시의 정원과는 다른 농가의 정원 살아 있는 문화유산 ② - 천연물감을 만드는 재료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으로서의 문화유산 - 향아리의 아름다움
끝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앓과 힘이 되어 주는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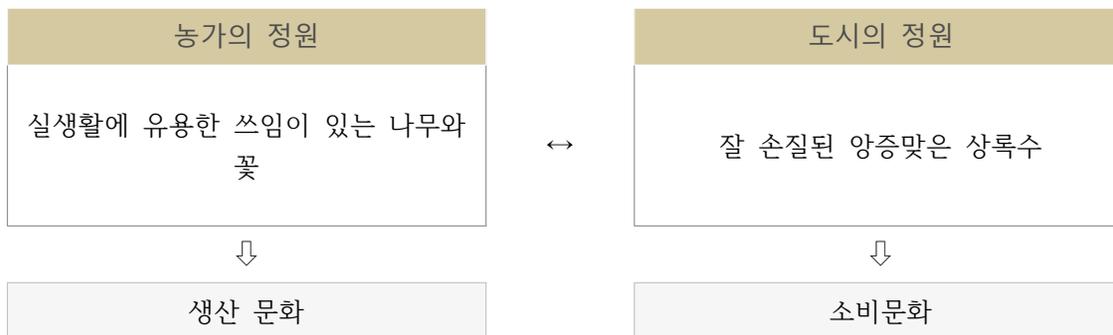
■ 문화유산의 의미

- 문화유산은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임.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것 =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앓이 축적되는 것 = 힘이 축적되는 것

- 글쓴이는 의식주에 연관된 문화유산, 특히 고급문화보다는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에 관심이 많음.

■ 농가의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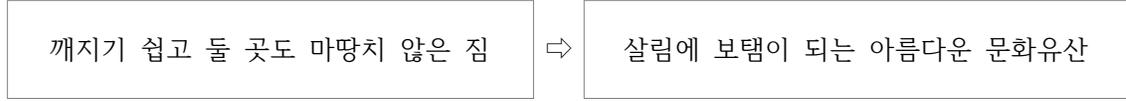
■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

- 천연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감을 물들이는 법을 알려 주심.
- 이웃들이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앓과 힘의 원천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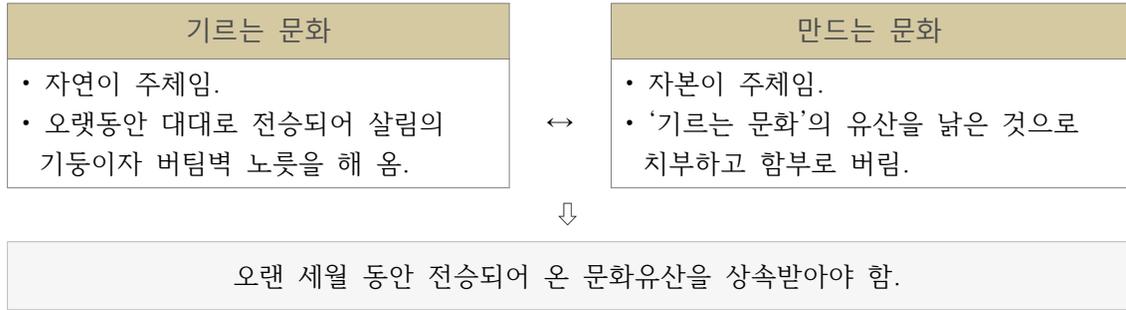
Ⅲ-2. 앓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 향아리

-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버리고 간 것을, 장을 담그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함.
-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문화유산임.



■ 기르는 문화와 만드는 문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삶의 흔적은 동시에 앎의 흔적이기도 하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은 그림을, 그릇을 만들 줄 아는 분은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앎이 축적된다는 말이요,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될 것이고, 더 구체화하여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잘살던 사람들의 고급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 생존의 문제다.

<중략>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답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게 안타까워 이 숨쉬는 항아리들에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얹혀 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별로이고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 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잘 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로 질게 묻어난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빛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 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양식의 찌꺼기로 치부, 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 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 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앞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길조차 없애 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수원여자고등학교 (서울)

1. <보기>의 방법으로 글을 읽을 때 할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흔히 읽기를 의미 구성행위라고 한다. 글의 의미를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내용뿐 아니라 생략되었거나 숨겨진 내용도 독자 스스로 추측해가며 읽어야 한다.

- ① 글쓴이는 항아리를 문화유산의 예로 들고 있어.
- ② 농촌 문화유산을 아끼는 글쓴이의 마음에 공감이 돼.
- ③ 글쓴이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 ④ 글쓴이는 의식주와 연관된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 ⑤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수원여자고등학교 (서울)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키워 온 주체는 ㉡과 달리 자연이다.
- ② ㉡은 ㉠으로부터 밀려나 함부로 취급되었다.
- ③ ㉠을 서구화된 문화를, ㉡은 전통 문화를 의미한다.
- ④ 글쓴이는 ㉡이 사라지게 되는 현실을 염려하고 있다.
- ⑤ ㉠의 예로 최신 스마트폰을, ㉡의 예로 한복을 들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삶의 흔적은 동시에 앓의 흔적이기도 하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은 그림을, 그릇을 만들 줄 아는 분은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앓이 축적된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될 것이고, 더 구체화하여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잘살던 사람들의 고급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 생존의 문제다.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마한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 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눈 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잘 손질된 양증맞은 상록수로 꾸며 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 뜰이 조선식 정원이다. 우리 집 뜰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일곱 그루,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또 화단에는 모란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두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깨움으로 가슴을 찼다. 직접 먹어 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 철 음식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 보았자 배를 불러 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꺾임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 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의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생산문화와 ㉢소비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서까지 이렇듯 두드러지는구나.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알려 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베에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 왔다. 처음에는 풋감을 짚어 갈옷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를 넓혀 갔다.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썩, 소리쟁이, 영경귀, 개망초, 머위…….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잇꽃과 쪽의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다.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 데다 살갓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일

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마치 흰 가지가 넘는다.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썩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뭇에 듣는 단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앓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이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중략>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 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양식의 찌꺼기로 치부, 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 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 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앞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길조차 없애 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 윤구병, 「앓과 삶의 원천, 문화유산」

가정고등학교 (인천)

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도시의 삶에서 회의를 느끼고 평화로운 농촌의 삶을 동경하게 된다.
- ② ‘나’는 농가의 뜰을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여긴다.
- ③ ‘나’는 조상들이 남긴 삶의 흔적 중 살림에 관련된 것만을 문화 유산이라 생각한다.
- ④ ‘나’는 천연물감을 들이는 실험을 통해 이웃들에게 염료 산업의 폐해를 알려주게 된다.
- ⑤ ‘나’는 전통 문화유산 전승의 단절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어갈 앓과 힘을 잃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가정고등학교 (인천)

4. ㉠~㉤ 중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만 묶인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될 것이고, 더 구체화하여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잘살던 사람들의 고급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 생존의 문제다.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마한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 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잘 손질된 양증맞은 상록수로 꾸며 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 뜰이 조선식 정원이다. 우리 집 뜰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일곱 그루,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또 화단에는 모란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두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깨움으로 가슴을 쳤다. 직접 먹어 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 철 음식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 보았자 배를 불러 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꺾개로 깎아 오래 간직해 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의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생산문화와 소비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서까지 이렇듯 두드러지는구나.

<중략>

향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답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이 숨쉬는 향아리들에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얹혀 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별로이고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향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 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잘 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 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로 질게 묻어난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빛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 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양식의 찌꺼기로 치부, 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 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 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앞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길조차 없애 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 윤구병, 「앓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인화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선조들이 남긴 삶의 지혜도 폭넓게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
- ② 글쓴이는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이다.
- ③ 글쓴이는 전통 문화 유산이 후손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 ④ 글쓴이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 문화 유산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 ⑤ 글쓴이는 향아리를 분별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잘 만들어진 향아리만을 골라서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인화고등학교 (경기)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산업화로 인해 대량 생산에서 비롯된 문화를 의미한다.
- ② ㉠은 자본주의적 원리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 ③ ㉠의 예로 온돌, 짚신, 옹기, 삼베옷, 발효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 ④ ㉡은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계승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꺾개로 옷을 물들이는 것과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형의 문화를 의미한다.

핵심어

- **타당성과 공정성:** 타당성은 글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근거가 정확한지를, 공정성은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 **표현 방법의 적절성:**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에 과장, 축소, 왜곡 등이 없음을 의미한다.
- **글쓴이의 의도:**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는가를 의미한다.
- **사회·문화적 이념:** 글쓴이는 글을 쓸 당시의 사회·문화적 이념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글에 반영된다.

■ 비판적 읽기의 개념

- 비판적 읽기: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며 읽는 활동
-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 글쓴이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출 수 없음.
- 글의 내용, 관점, 표현 방법의 적절성, 글쓴이의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함.

■ 비판적 읽기의 방법

- ① 내용의 타당성 판단하기: 글에 나타난 주장이 합리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
 -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주장에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 본다.
- ② 관점의 공정성 판단하기: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
 -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인지, 글쓴이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따져 본다.
- ③ 표현 방법의 적절성 헤아리기: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 것
 - 글에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이 없는지 따져 본다.
- ④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하기: 글의 의도는 글쓴이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념에 영향을 받으므로,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 것
 - 글쓴이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 보고,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지 따져 본다.

■ 비판적 읽기의 예 - <냉장고의 두 얼굴>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_안창호

■ 핵심 정리

갈래	논설문
성격	논리적, 설득적, 대조적
제재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주제	정의의 돈수를 길러 대한 사회를 화기 넘치는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
특징	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정의'와 '돈수'의 개념을 정의함. ② 무정한 사회의 모습과 유정한 사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함. ③ 당시의 대한 사회를 무정한 사회로 파악한 뒤에 '정의'를 길러 서양 사회와 같은 유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함.

■ 작품의 구성

처음	정의와 돈수의 의미
중간	정의와 사회의 관계 무정한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 다정한 남의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 우리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정의를 기르는 방법
끝	정의의 돈수에 힘써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

■ 정의와 돈수의 의미

정의(情誼)	친애와 동정의 결합	
	친애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 사랑함.
	동정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같이 여김.

돈수(敦修)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하는 것
--------	---------------------------------

■ 정의와 사회의 관계

유정한 사회	↔ 대조	무정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과 비와 이슬을 받는 화원과 같음. 고통이 없고 모든 일이 잘됨.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어 용기를 내서 일함.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시밭과 같아서 사방이 괴로움으로 가득 함.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함. 사람들이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감. 염세와 낙약과 불활발이 있으며, 사회가 사람의 원수가 되어 모든 일이 안 됨.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고 모든 일이 잘 됨.

Ⅲ-3.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의 모습

	무정한 대한 사회	다정한 남의 사회(서양 사회)
가정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정의가 없음.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장난의 대상으로 여김. 아이들은 어른에게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함.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서로 원수지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남. 결코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특별하게 대우함. 아이들이 공포심 없이 화기애애하게 자라남.
학교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장이 호랑이 노릇을 하며 두렵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지못해 학교에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이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접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함.
사회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정이 없음. 혼상, 제사 등이 허례허식으로 변질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임하지 않음. 관민끼리도 정이 없고 원수지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집회, 예배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웃고 먹고 하며 정의를 화목하게 함. 모든 사람이 친목 단체를 가지며 직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즐거워함.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함.
남녀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사이의 정의가 끊어져 서로 보고 웃지도 못하고, 남녀가 교제하면 범죄처럼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자극하여 서로 아끼고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를 나쁘게 말하지 않음.

■ 정의 기르기 공부의 필요성

-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정의가 있어야 우리 민족이 단결하고 흥할 수 있음.
- 정의가 많으므로 사회에 화기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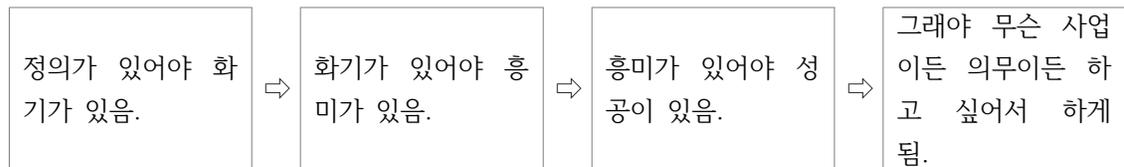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 기르기 공부가 필요함.

■ 애국자를 대하는 태도

무정한 대한 사회	다정한 남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점만 집어내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도와 주지 않음. •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 내지 않으면, 예전에 도움을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욕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귀천의 구별 없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체면과 수고를 따지지 않고 기꺼이 도와 줌.

■ 정의 기르기 공부의 연쇄 효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의(情誼)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써 사랑함이고,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같이 여김입니다. 그리고 돈수(敦壽)란 있는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 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 이 잘되도록 노력하자 함입니다.

(나)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고,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雨露)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통이 없을뿐더러 모든 일이 잘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으므로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 납니다. 이에 반하여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사방에 괴로움뿐이므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유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염세와 나약과 불활발이 있을 따름이며,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언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김은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또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집 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하였는데, 종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 못하였다고 내쫓습니다.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 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리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판이 납니다.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공지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입니다.

(라)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웁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어렸을 적부터 공포심이 조금도 없이 화기에애하게 자랍니다.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략>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부부 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께안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없고 다만 두터운 정뿐입니다.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조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으므로 차디찬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됩니다.

(마) 우리는 이 정의 돈수 문제를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 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참삶의 맛을 알겠습니다. 일언일동(一言一動)에 우리 사이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우리 동포는 어디 모인다면 으레 싸우는 것으로 압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써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의를 기르는 데 있어서 주의할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1.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2. 남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 3.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 4. 남에게 물질적으로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 5. 정의 깊고 얽음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 6. 신의를 지켜야 한다. / 7. 예절을 지켜야 한다.

(바) 정의 없는 대한 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살아 봅시다. 다시 하는 말은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의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 정의 돈수 네 글자에 의지하여 삽시다.

- 안창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가정고등학교 (인천)

1.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한 사회를, ㉡은 남의 사회를 의미한다.
- ② ㉠은 ㉡과 달리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가 사는 사회이다.
- ③ ㉠은 ㉡과 달리 사회에 화기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잘된다.
- ④ ㉡은 ㉠과 달리 집과 학교에서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 ⑤ ㉡은 ㉠과 달리 가장 다행이고 복 있는 자가 사는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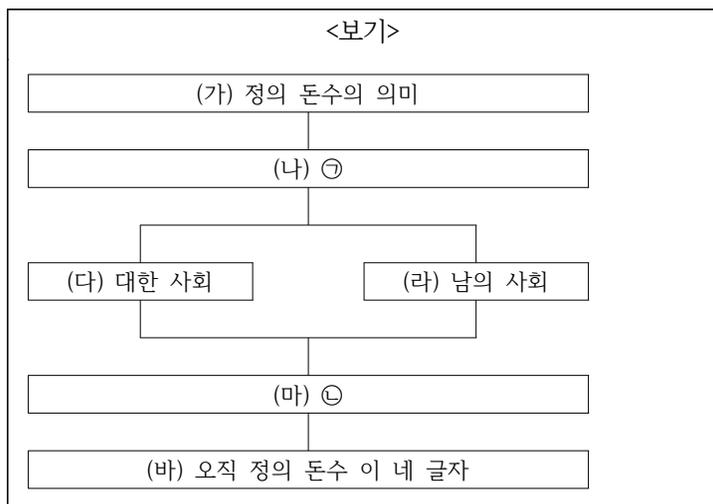
가정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글쓴이가 정의 돈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글쓴이가 진단하고 있는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글쓴이가 살았던 시대는 정의가 없는 사회일까, 있는 사회일까?
- ④ 글쓴이가 말하는 화가 있는 대한 사회로 가능 방법은 무엇인가?
- ⑤ 글쓴이가 말하는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일까?

가정고등학교 (인천)

3.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요약한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고른 것은? 2



- ① ㉠ 정의와 사회의 관계
㉡ 정의 기르기 공부의 효과와 한계
- ② ㉠ 정의와 사회의 관계
㉡ 정의 기르기 공부의 필요성과 방법
- ③ ㉠ 유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 정의 기르기 공부의 효과와 한계
- ④ ㉠ 유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 정의 기르기 공부의 효과와 한계
- ⑤ ㉠ 유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 정의 기르기 공부의 필요성과 방법

가정고등학교 (인천)

4.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윗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글에 숨겨진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① 여자가 남자보다 정의 많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의 성격 차이일 뿐이지 성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 ②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사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데 있어 적절한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적절해.
- ③ 우리 사회와 남의 사회를 비교할 때, 남의 사회를 우리 사회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와 남의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 ④ 서양 아이들은 정의 가득한 가정에서 꽃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다고 했는데, 이는 서양 사회의 부모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
- ⑤ 서양의 남녀 관계에 대해 호의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어려웠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글쓴이의 입장에서 서양의 자유로운 남녀관계가 좋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의(情誼)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써 사랑함이고,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같이 여김입니다. 그리고 돈수(敦壽)란 있는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 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 이 잘되도록 노력하자 함입니다.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나)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雨露)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동이 없을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으므로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 납니다.

이에 반하여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사방에 괴로움뿐이므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유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염세와 나약과 불활발이 있을 따름이며,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다)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백 년 동안에 대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사할 문제에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에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까.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언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았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 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김은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 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또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집 안에 계신 조 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하였는데, 종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 못하였다고 내쫓습니다.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 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판이 납니다.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공지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입니다.

(라)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웁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어렸을 적부터 공포심이 조금도 없이 화기애애하게 자랍니다.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에도 화기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음악대가 있고, 또 교우들이 때때로 모여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네들은 정의를 밭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상인이나, 학생이나,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친목 단체를 안 가진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작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워합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부부 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없고 다만 두터운 정뿐입니다.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으므로 차디찬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됩니다.

- 안창호, '무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

중앙사대부고 (서울)

5. 윗글을 읽고 토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의 성격 차이이지 성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 ② 남의 사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와 균형 있는 비교를 하지 못한 편견이라고 생각해.
- ③ 우리 사회가 아무 정의(情誼)가 없다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을 왜곡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해.
- ④ 제3자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공감이 되지 않아.
- ⑤ 대한사회가 무정하다고 하는데, 이건 서양 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있으면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거야.

중앙사대부고 (서울)

6.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한사회는 국가 명운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돈수(敦修)'의 유무에 달렸었다.
- ② 대한사회가 유정했던 때에는 사람들이 즐겁고 모든 일이 잘 풀렸었다.
- ③ 대한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천부한 무정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견디었다.
- ④ 대한사회가 무정한 탓에 개인들도 냉정하게 행동하고 단결하지 못하였다.
- ⑤ 대한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정의(情誼) 돈수(敦修)'하는 삶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중앙사대부고 (서울)

7. (다)에서 대한사회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 ① 상화하택(上火下澤) ② 고장난명(孤掌難鳴)
- ③ 십시일반(十匙一飯) ④ 공존공영(共存共榮)
- ⑤ 줄탁동기(啐啄同機)

중앙사대부고 (서울)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글쓴이가 바라는 유정한 사람의 모습을 서술하시오.

<조건>

<보기>의 '그늘이 없는 사람'과 '눈물이 없는 사람'을 무정한 사람으로 읽을 것.

<보기>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 된 사람을 사랑한다//
 (중략)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 다른 사람의 눈물을 /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핵심어

- **공감:**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넣어,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일
- **내면화:** 정신적·심리적으로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힘. 또는 그렇게 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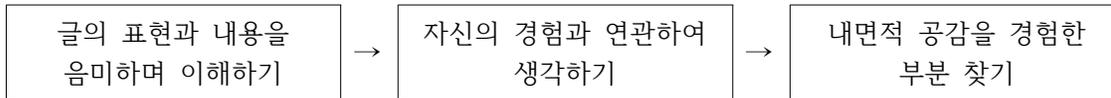
■ 감상적 읽기의 개념

- 감상적 읽기: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읽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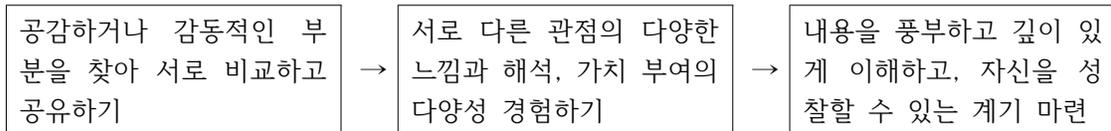
인지적 독서	정의적 독서
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 방법	글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읽기 방법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 감상적 읽기의 방법

- ①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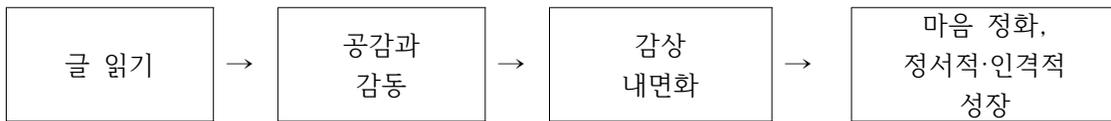


- ② 공감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 공유하기



- ③ 감동적인 부분 내면화하기

- 내면화: 글의 내용이나 독서 과정에서 얻은 가치, 태도, 사고, 정서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
- 내면화 과정



■ 감상적 읽기의 예 - 신경림, <동해 바다-후포에서>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비유적, 성찰적
제재	바다
주제	바다처럼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싶은 소망
특징	① 점층법을 사용하여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② 바다를 통해 자신을 성찰함.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_나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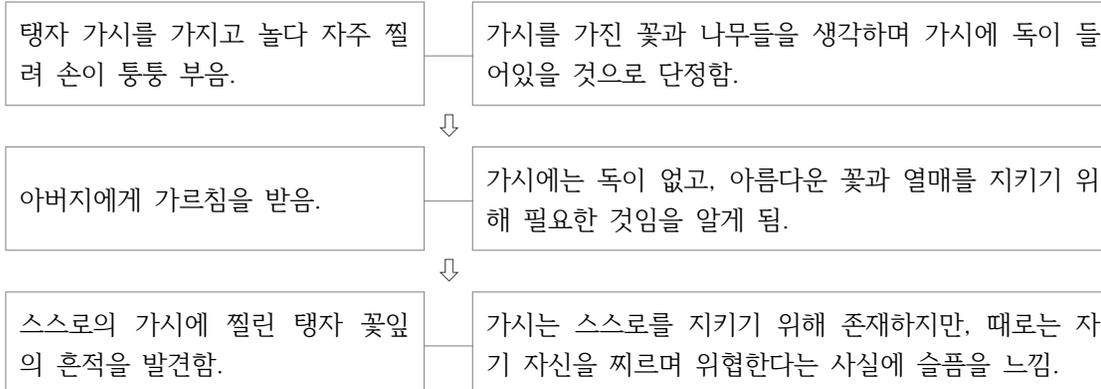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교훈적, 서정적, 체험적
제재	탱자나무
주제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의 중요성
특징	①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며 삶의 교훈을 전달함. ② 핵심 소재인 '가시'의 의미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설명함. ③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물을 통한 비유를 사용함.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쓴이의 사고가 변화함을 보여 주고 있음.

■ 작품의 구성

처음	어린 시절 늘 곁에 있었던 탱자나무 울타리
중간	'가시'에 얽힌 유년기의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날카롭게 자라난 가시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가시의 의미와 역할
끝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 얻게 된 인생에 대한 깨달음

■ '가시'에 대한 유년기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



■ '가시'의 의미와 역할

가시: 삶 속의 고난이나 어려움	
↓	
부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도록 괴로워함. • 삶을 혐오하게 됨. • 삶을 고통스럽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함. •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함. •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 줌.

Ⅲ-4.내 유년의 울타리는 탕자나무였다

■ '가시'와 '열매'의 관계



탕자나무는 '가시'로 아름다운 '꽃'을 지킴으로써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다. 수많은 가시는 그 날카로운 속성으로 스스로 꽃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한 과정이 있기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가시를 통한 깨달음

- 가시와 같은 대상이 오히려 겸허한 자세를 갖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
- 가시를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음.

잃어버려야 할 것

'가시'를 부정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

지켜야 할 것

'가시'를 통해 얻는 겸허한 자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은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나)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카로운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 나희덕, 「푸른 밤」

*에움길 : 굽은 길, 또는 에워싸 돌아가는 길

(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중략>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지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겍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 보았다. 그 가지 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지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중략>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지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지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그는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아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뿔뿔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아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가시 박힌 상처가 별걸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돌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 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 나희덕,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가정고등학교 (인천)

3.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가),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③ (나), (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현실의 변화로 인한 상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대상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가정고등학교 (인천)

4. (가)의 화자(A)와 (다)의 글쓴이(B)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 ② B : 때로는 자신이 가진 한계나 약점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기도 하죠.
- ③ A : 네, 그래서 고통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 ④ B : 결국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고통이란 없으니 슬기롭게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 ⑤ A : 우리 모두 고난과 시련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지녔으면 좋겠어요.

가정고등학교 (인천)

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가시’의 양면성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감정
- ② ㉡ : ‘가시’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깨달음
- ③ ㉢ : ‘가시’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
- ④ ㉠ : ‘가시’를 경험하지 못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삶의 모습들
- ⑤ ㉢ : ‘가시’로 인해 유년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전체 정답>>

I-1. 독서에 대하여

1.① 2.⑤ 3.⑤ 4.① 5.③ 6.② 7.⑤ 8.① 9.② 10.②
11.② 12.수동적으로 남독을 하는 방법은 잘못된 독
서방법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
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바람직한 독서를 실천해야 한다. 13.⑤ 14.③ 15.④
16.② 17.⑤ 18.② 19.⑤ 20.③ 21.A: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독자는 풍성한 힘을 기
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
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B: 알프스를 오르
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22.④ 23.⑤ 24.①

I-2.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1.④ 2.③ 3.② 4.① 5.현대인들은 사랑의 열정을 소모
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사랑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6.③ 7.① 8.② 9.① 10.③ 11.③ 12.④
13.⑤ 14.⑤ 15.① 16.② 17.② 18.② 19.④ 20.④ 21.
② 22.③ 23.④ 24.⑤ 25.① 26.⑤ 27.④ 28.③ 29.사
랑은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 30.⑤ 31.③ 32.② 33.②
34.⑤ 35.④ 36.③ 37.① 38.⑤ 39.② 40.② 41.④ 42.
② 43.① 44.㉠ 주제 통합적 ㉡ 비판적 ㉢ 보다 객관
적이고 풍부한 정보 45.⑤ 46.③ 47.② 48.⑤ 49.③
50.⑤ 51.① 52.⑤ 53.인간은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하
고 읽어낼 수 있지만,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 사랑은 여느 감정과 달리 반드시 행동
을 동반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다, 뇌 활동 사진을 찍
으면 사랑은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
된다. 54.④ 55.⑤

II-1.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

1.③ 2.② 3.⑤ 4.② 5.③ 6.④ 7.④ 8.② 9.③ 10.③
11.③ 12.④ 13.④ 14.⑤① 15.창과 방패, 싸움의 기
술, 무기, 공부 16.③

II-2. 함께 읽기의 즐거움

1.⑤ 2.④ 3.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 4.③ 5.① 6.⑤ 7.②

III-1. 커피 이야기

1.⑤ 2.① 3.④ 4.④ 5.⑤ 6.① 7.③ 8.④ 9.④ 10.④
11.② 12.① 13.① 14.⑤ 15.② 16.(1) 커피를 가공하
는 방식을 분류하였으며, 건식법의 단계를 과정에 따

라 설명하고 있다, (2) 건식법과 습식법의 공통점이
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 쓰였다. 17.④ 18.④ 19.⑤ 20.⑤ 21.⑤
22.② 23.② 24.② 25.① 26.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독
자의 관심을 끈다, 핵심 제재와 연관 있는 개념을 정
리해 준다. 27.(나)에는 분류와 과정의 방식이 (다)에
는 유추와 비교,대조의 방식이 (라)에는 과정의 방식
이 사용되었다. 28.생두, 체리, 생두 29.(다)커피가 되
기 위해 생두를 볶는 로스팅 과정을 거친다. (라)커피
원두는 로스팅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을 수 있
다. 30.⑤ 31.④ 32.② 33.① 34.② 35.인간은 평등하
게 태어났다는 진리

III-2. 앎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1.③ 2.① 3.⑤ 4.① 5.⑤ 6.③ 7.② 8.⑤ 9.① 10.①
11.② 12.④ 13.(1) ㉠ 소비 문화 ㉡ 생산 문화 (2) ㉢
자연 ㉣ 자연이 주체인 생산적 전통 ㉤ 한복, 김치,
한옥 등 14.④ 15.전통 문화 유산의 전승이 단절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16.① 17.② 18.농가의 뜰(시골
집 뜰, 조선식 정원), 농가의 뜰은 실생활에 유용한
쓰임이 있는 나무와 꽃이 있는 생산 문화이지만, 도
시의 정원은 잘 손질된 양증맞은 상록수가 있는 소
비문화이다 19.③ 20.④ 21.④ 22.⑤ 23.⑤ 24.① 25.
③ 26.①

III-3.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1.③ 2.⑤ 3.② 4.② 5.④ 6.④ 7.① 8.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공감
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9.⑤ 10.④ 11.② 12.③ 13.⑤ 14.
② 15.⑤ 16.③ 17.④ 18.⑤ 19.⑤ 20.④ 21.③ 22.⑤
23.① 24.② 25.③ 26.② 27.⑤ 28.③ 29.⑤ 30.⑤

III-4.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1.① 2.⑤ 3.③ 4.④ 5.⑤ 6.⑤ 7.③ 8.⑤ 9.④ 10.③
11.① 12.② 13.① 14.어른이 되면서 탱자(나무)와 멀
어지고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다. 15.① 16.④ 17.
⑤ 18.④ 19.③ 20.① 21.① 22.④ 23.상징적 의미: 삶
의 고난(역경) / 긍정적 역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
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 24.① 25.⑤

III-5.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1.① 2.② 3.① 4.⑤ 5.② 6.④ 7.③ 8.② 9.② 10.(1)
근거: 바다의 오염 지대도 해류를 타고 확산되면 점